

KWC 2020 PORTUGUESE WINE

지난해 KWC 2020에 참여한 16개국 중 출품 수 8위를 기록한 국가, 바로 포르투갈이다. 포르투갈 와인은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맛으로 심사위원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기도 했다. 포르투갈이라는 와인 산국이 일반적인 와인 소비자에게는 아직 낯설 수 있다. 하지만 포르투갈 와인의 매력은 무궁무진하다.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를 살펴보면서 KWC 2020 수상 와인을 만나보자.

글 <Wine Review>편집팀 사진 Wikipedia, Pixabay



PORTUGAL

포르투갈은 유럽 서남부 대서양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의 한 나라이다. 국토의 서쪽과 남쪽은 긴 해안선을 따라 대서양을 마주하고 있으며 북쪽과 동쪽은 스페인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포르투갈은 1756년 도우루 일대를 와인 산지로 지정했을 정도로 전통적인 와인 산국의 모습을 띤다. 국토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는 떼주 강을 중심으로 북부지방은 기복이 심한 산악 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남부지방은 평야와 낮은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토양은 규토층, 화강암, 혈암과 사암 등으로 되어있다. 국토 대부분의 지역에서 포도 재배가 이루어질 만큼 기름진 토양이 뒷받침되고 있다. 기후는 전반적으로 온후한 편이다.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와인으로는 주정 강화 와인인 포트 와인, 아페리티프 와인인 마테이라 와인이 있다. 이외에도 토착 품종과 국제 품종의 블렌딩으로 독특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남부지방의 와인 산지가 명산지로 알려지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산지로는 알렌테주, 리스보아, 세투발 등이 있다.

DOURO 도우루

세계적 명주가 나는 도우루는 도우루 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포르투갈의 와인 산지이다. 트라우스몽테스에서 남쪽으로 향하면 볼 수 있는 내륙 지역이다. 1756년 포트 와인 산지로 지정되었으며 1982년 같은 지역 내에 테이블 와인의 산지가 병합되었다.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험준한 지형을 가진 와인 산지 중 하나로 꼽힌다. 가파르고 험난한 포도밭은 도우루 강을 내려다보는 테라스형으로 돼 있다. 또한, 돌벽으로 쌓은 이 포도밭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기후는 지중해성을 보인다. 무덥고 건조한 여름이 있는가 하면 거칠고 습한 겨울이 있기도 하다. 도우루는 오랜 역사 동안 포트 와인의 명성으로 유명하지만, 오늘날에는 테이블 와인 생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레드 품종으로는 바스파르두, 모우리스구 띠뎀(Mourisco Tinto), 띠뎀 로리즈, 포우리가 나시오날이 있으며 화이트 품종으로는 말바시아 프레타(Malvasia Preta), 비오진뉴(Viosinho), 고우베이우(Gouveio) 등이 있다.

LISBOA 리스보아

리스보아는 2009년까지만 해도 에스트레마두라(Estremadura)로 불리던 지역이다. 이는 과거에서 사용했던 주의 이름으로, 수도 리스보아(영어로는 리스본)를 포함한 지방이었다. 리스보아의 지역 이름은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보아에서 따왔으며 와인 산지는 수도의 서쪽과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대서양 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진 이 지역은 바이라다까지 뻗어 있다. 리스보아는 9개의 세부 산지로 나뉘며 그중 하나는 브랜디(Brandy)를 다룬다. 이전의 리스보아는 와인 산지로서 그리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오늘날 질 좋은 와인을 내는 명소로 바뀌었다. 여기에는 대서양의 온난한 기후대와 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거대한 인프리카 한몫했다. 리스보아의 와인은 마시기 쉬우면서 독특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자아낸다. 주요 화이트 품종은 아린토, 페라나오 피레스(Fernao Pires), 말바시아 등이 있으며 레드에는 알리칸테 부쉐, 아라고네스, 까스텔라옹 등이 있다.

SETÚBAL 세투발

세투발은 리스보아의 남쪽, 떼주 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지역이다. 세투발에서 다리를 건너면 수도인 리스보아로 이동할 수 있다. 이곳은 한때 마테이라 와인과 포트파이드 와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지역이다. 이 반도에는 2개의 DOC가 있다. 먼저 세투발 DOC는 모스까텔 포도밭이 있다. 모스까텔 데 세투발(Moscatel de Setubal)이라는 포트파이드 와인 생산지로 유명하다. 질 좋은 모스까텔은 주로 남쪽 해안에 있는 아라비다 언덕의 석회석 토양에서 나온다. 팔메라(Palmela) DOC는 주로 레드 와인을 빚는다. 까스텔라옹 품종이 메인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아라고네스, 까베르네 소비뇽, 시라, 트린까테이라(Trincadeira) 등과 함께 쓰인다.

ALENTEJO 알렌테주

알렌테주는 포르투갈 남부에 있으며 전 국토의 약 1/3을 차지할 만큼 광활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세련된 레드 블렌드 와인으로 특히 유명하다. 토착 품종인 포우리가 나시오날, 포우리가 프랑카(Touriga Franca) 등을 시라, 까베르네 소비뇽과 같은 국제 레드 품종과 블렌드해 지역적 특색을 가진 와인을 빚는다. 알렌테주 DOC는 8개의 세부 지역으로 나뉜다. 2003년까지만 해도 개별 DOC와 IPR로 분류되던 지역이 알렌테주 DOC로 통합되었다. 와인 레이블의 산지 표기는 대체로 'Alentejo DOC'로 명시되는데 간혹 세부지역을 표기할 때도 있다. 알렌테주 와인은 부드럽고 마시기 편한 레드 와인이 주를 이룬다. 이외에도 신선한 풍미와 적당한 넉넉함을 보이는 화이트 와인이 있다. 레드 품종은 아라고네스, 모레투 등이 있으며 화이트 품종은 로우페이루(Roupeiro) 등이 있다.



▶ **Casa Ermelinda Freitas** 까사 에르멜린다 프리타스

1920년 설립된 후 가족경영으로 이어져 온 와이너리로, 현재 운영책임을 지고 있는 3대손 에르멜린다 프리타스의 이름을 대표로 내세웠다. 함께 와이너리 운영을 맡았던 남편 마누엘(Manuel) 프리타스와의 갑작스러운 사별로 현재는 외동딸인 레오노르(Leonor)와 함께 가업을 이끌고 있다. 세두발 팔메라 지역에 소유한 빈야드에서 수확한 포도로 와인을 빚는다. 포르투갈 남부에 위치한 이들 포도밭의 토양은 해변 모래와 매우 유사하며 물이 매우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포도의 성숙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주변의 강바람이 건조한 여름 동안 포도밭에 생기를 불어넣어 부드럽고 우아한 와인을 빚어낸다.

수입사 인터볼고루에다

수상 와인 리스트

- Gold** Casa Ermelinda Freitas Moscatel De Setubal Superior
- Gold** Casa Ermelinda Freitas Vinha Do Fava Touriga Nacional
- Silver** Casa Ermelinda Freitas Alicante Bouschet Reserva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 리스트

- Gold** Casa Ermelinda Freitas Vinha Da Valentina Reserva
- Gold** Ermelinda Vinhos de Portugal Gabia
- Silver** Casa Ermelinda Freitas Sauvignon Blanc & Verdelho
- Silver** Ermelinda Vinhos de Portugal Gabia Loureiro
- Bronze** Casa Ermelinda Freitas Sand Creek
- Bronze** Casa Ermelinda Freitas Vinha Da Valentina Branco Premium



▶ **Vidigal Wines** 비디걸 와인

20세기 초에 설립된 비디걸 와인은 그간 많은 소유주의 손을 거쳐왔다. 현재는 덴마크계 포르투갈인인 안토니우 멘데스 로페스(Antonio Mendes Lopes)가 수장을 맡아 두 명의 양조학자와 함께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양조 책임자 중 한 명인 안토니우 벤투라(Antonio Ventura)는 2006년 포르투갈 선정 올해의 양조인(Portuguese Oenologist of The Year 2006)으로 뽑혔을 만큼 실력 있는 재원이다.

와인을 빚을 때는 파트너십을 맺은 리스보아의 포도밭에서 공급받은 포도를 사용한다. 이 지역의 포도밭은 대서양과 가까워 바닷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이곳에서 난 포도를 사용하면 신선하고도 프루티한 와인을 얻을 수 있다. 비디걸 와이너리는 전통에 따라 빼어난 품질의 와인을 빚는 데 집중한다. 동시에 병과 레이블 디자인에 현대적 감각을 덧입혀 와인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 와인 리스트

- Silver** Porta 6 Tinto

▶ **Monte da Ravasqueira** 몬트 다 라바스케이이라

가족경영으로 운영 중인 몬트 다 라바스케이이라는 포르투갈 남동부 알렌테주 지역의 대표 와인 생산자로 자리 잡았다. 1998년, 주제 드 멜로(Jose de Mello)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개간해 포도밭을 일군 것이 와이너리의 첫 삽을 뜬 일이었다. 2001년 수확을 마친 포도로 와인을 생산했지만 판매하진 않았고, 2002년 빈티지를 첫 정식 빈티지로 시장에 내놓게 된다. 2009년엔 현재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는 페드로 드 멜로(Pedro de Mello)가 가업을 물려받았다.

라바스케이이라가 생산한 와인은 정제되지 않고 순수한 때루아가 인상적이다. 이는 포도밭의 구획을 나누어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항공사진을 찍는 등 라바스케이이라의 와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했던 페드로의 노력이 묻어난 결과다.

수입사 루나

수상 와인 리스트

- Silver** Ravasqueira Reserva da Familia Red
- Silver** Ravasqueira Vinha das Romas



▶ **Casca Wines** 카스카 와인

일종의 프로젝트 기업인 카스카 와인은 회사 소유의 빈야드나 와이너리를 두지 않고 있다. 헬더 쿠냐(Helder Cunha)가 포르투갈 와인의 역사와 품질을 결합해 독특한 와인을 생산하기로 결심한 뒤 와인메이커와 전문가들을 모아 시작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포도밭이나 양조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포르투갈 각 와인 산지에서 최고의 포도를 찾아낸다. 또한, 그곳의 가장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생산자와 협력해 그들의 전통과 카스카 와인이 가진 현대의 노하우, 기술 및 디자인을 결합해 와인을 만든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 리스트

- Bronze** Bote Bio Red
- Bronze** Bote Bio White

▶ **Cooperativa Agricola Santo Isidro de Pegoes**

코페라치바 아그리콜라 산토 이시드로 데 페고스

산토 이시드로 데 페고스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958년 3월 설립 당시에는 포르투갈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1974년에 지금과 같이 온전한 형태의 협동조합으로 분리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와인 양조 시 필요한 장비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협동조합 운영의 체계적인 전략을 완벽하게 수립해 나갔다.

이들 와인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가장 큰 요소는 페고스 산지의 기후와 토양 조건이다.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를 띠며 토양은 세두발과 알렌테주 사이에 자리한 페고스 지역의 특성에 따른다. 타구스(Tagus)강과 사도(Sado)강에서 운반된 모래가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든 독특한 지형과 토양에 영향받은 탓이다. 이렇듯 기후와 토양의 특성을 담고 있는 산토 이시드로 데 페고스의 와인은 다른 와인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수입사 나루글로벌

수상 와인 리스트

- Best Portugal Red** Adega de Pegoes Syrah
- Gold** Adega de Pegoes Moscatel de Setubal
- Gold** Adega de Pegoes Selected Harvest White
- Silver** Adega de Pegoes Alicante Bouschet
- Bronze** Adega de Pegoes Selected Harvest Red

▶ **Companhia Agricola Do Sanguinhal**

컴파니아 아그리콜라 두 산구이날

1926년 아벨 페레이라 다 폰세카(Abel Pereira da Fonseca)가 포르투갈 중부 지역에 설립한 이후 4대째 가문을 통해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와이너리이다. 초기에 아벨은 포도 덩굴 사이에 다른 과일나무를 심지 않고 독립된 포도밭을 만들었다. 트랙터가 없는 시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여겨지는 일이었다. 포도밭을 다시 구역별로 나누어 오직 한가지의 품종만 심었는데 이 또한 당시에는 혁신적인 작업이었다. 울퉁한 길을 만들어나가던 초기 양조 철학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은 와인 양조 설비에 많은 투자를 해 최신 시설을 갖추기도 했다.

산구이날은 지역적 특색과 토양의 성격이 다른 3개의 에스테이트를 소유하고 있어 각기 다른 특성을 살린 와인을 양조한다. 그중에서 Quinta S. Francisco가 가장 큰 포도밭을 가지고 있다. 이 빈야드에서 자란 포도로 높은 숙성도와 뛰어난 품질을 보이는 와인을 생산한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 리스트

- Silver** Companhia Agricola Do Sanguinhal Quinta S. Francisco
- Bronze** Companhia Agricola Do Sanguinhal Peninsula De Lisboa